

가장 연약한 자들을 제자로 불러 그들로 세상을 살리고 축복하게 하셨다. 이들이 세상을 살린 씨밋들이다.

왜 선교 치유라는 제목을 붙였을까? 적어도 세가지 의미가 그 속에 있다.

**첫째는 내 옆에 모든 민족을 살릴 만큼 우리 자신이 치유 받아야 한다.** 내가 사는 곳에서 불신자가 구원받고 다민족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우리도 같이 살 수 있다. 그때 내가 사는 곳에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. 왜 이렇게 세상이 어려울까? 빛을 가진 우리가 그 빛을 발하지 않기 때문이다(사60:1).

아직도 타민족, 타문화권의 사람들이 싫다면 치유 받아야 한다. 요나의 실패가 그것이다.

**둘째는 내가 땅끝까지 가서 선교할 수 있을 만큼 치유 받아야 한다.**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(학업, 일, 산업, 눈물과 아픔까지도)이 증거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다(행1:8).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미션이고 축복이다. 그 증거가 언제 오냐? 내 인생이 이 언약을 붙잡고 전도와 선교 속에 있을 때이다. 평생을 통해 응답과 축복이 올 것이다. 선교 헌신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.

**셋째는 선교 자체를 치유해야 한다.** 하나님이 원하시고, 말씀이 가르치는 선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.

선교가 프로그램이 되어 버리고, 선교가 구체 사역이 되어 버렸다. 심지어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할 때도 선교사를 앞세우기도 했다. 하다하다 할 게 없어서 선교 한다는 사람들도 있다. 올바른 선교 아니다 .

**1. 선교지의 영적 사실을 보고,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선교이어야 한다.**

1) 먼저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, 사건, 사람, 세상을 사단의 열두가지 전략(함정, 울무)으로 보는 훈련을 하라.

① **왜 내게 이런 나쁜 일들이 벌어질까?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짓을 할까? 영적 문제이다.**

결국 자기 중심, 육신 중심, 타락한 세상 중심의 체질에서 나온 것이다.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고, 그것이 오래된 상처일 수도 있다. 악한 말, 악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자기 조절이 안 되기도 한다. 영적 문제이다.

② **선교지에 가보면 너무 무지하고, 너무 가난하고, 너무 더럽고, 너무 타락한 모습들을 볼 수 있다.**

우상 숭배가 강한 나라일수록 더욱 그렇다. 그것이 사단 전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, 영적치유를 해주어야 한다.

베드로가 성전 미문의 얇은방이를 보면서 이것을 본 것이다.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영적 문제를 본 것이다.

2) **그때만 오직 그리스도의 결론이 나고, 그때부터 보좌의 권세와 능력이 시공간 초월로 나타나는 것이다.**

① **얇은방이에게 외쳤던 베드로처럼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선포하는 데 인생이 바뀌는 것이다(행3:6).**

참 제사장의 권세로 해방 받게 해주어야 한다. 참 왕의 권세로 그 배후의 사단의 권세가 깨져야 하는 것이다.

참 선지자의 권세로 그 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것을 체험하게 만들어주어야 한다.

② **이 세 권세를 합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(보좌의 권세)라고 하고, 그 권세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다.**

우리가 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, 누리고, 선포할 때 무엇을 해도 유일성,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.

3) **이 그리스도를 비밀을 알고, 생명을 걸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라는 것이다.**

그들을 영적 씨밋 또는 세상을 살릴 제자라고 하는 것이다.

① **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것은 부족해도, 수없이 실패도 했지만 결국 그리스도 따라간 사람들이다.**

그들이 영적 문제가 가득한 세상을 치유하고, 바꾸고, 살린 것이다. 그들이 하나님이 쓰신 진짜 씨밋들이었다.

② **불신자 중에도 그렇게 쓰임받을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다.**

그들을 찾아서 세례를 주라고 한 것이다(개인 구원화). 불신자 찾아서 구원받게 만들라.

그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할 미션을 찾는다(교회화). 당연히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되어 있다.

그들이 세상으로 가서는 또 다른 불신자를 살린다(재생산). 한 사람의 불신자 옆에 같이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.

③ **이렇게 영적인 문제를 알고, 전도할 줄 알고, 제자로 세울 줄 아는 선교사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다.**

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(마10:42)

바울의 부탁대로 세가지를 위한 기도 파수꾼이 되라(엡6:18). 자신을 위해, 교회를 위해, 전도자들을 위해서이다.

**2. 전도와 선교의 진정한 주인공은 평신도들이다. 내가 사는 현장의 선교사들이기 때문이다.**

1) **초대 교회에 일곱 집사를 세우고, 장로들을 세운 이유가 그것이다. 내 현장을 살리는 선교사로 세운 것이다.**

초대 교회 이후에 종교 개혁까지 교회가 타락하고 힘을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다.

평신도가 복음 놓치고 전도 놓치니 전부 육신 중심, 세상 중심으로 간 것이다. 누구 책임이겠는가?

평신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, 전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지 못한 목회자 책임일 것이다.

2) **평신도와 종직자들이 현장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. 종교 개혁자들이 외친 <만인 제사장>이 그것이다.**

다락방 전도 운동이 그것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이다. 직장에 다니는가? 직장 선교사이다. 대학에 다니는가?

대학 선교사이다. 군에 있는가? 군 선교사이다. 의료인인가? 의료 선교사이다.

3) **이런 평신도 전문인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함께 세계복음화를 한 것이다(텐트 메이커 아굴라. 의원 누가)**

선교지에는 이런 복음 가진 기능인들과 전문인들의 도움이 너무 필요한 것이다.

단기 선교를 해도 이런 기능인들과 전문인들이 함께 해야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문이 열린다.

**3. 미래 선교를 준비해야 한다. 렘넌트를 씨밋으로 키우고, 제자로 키워 파송하는 것이다(TCK가 주역이다).**

내가 누린 복음, 내가 받은 축복, 내가 체험한 선교를 다음 세대에 전달해주어야 한다.

1) **우리 후대가 전도와 선교를 놓치면 결국 어둠이 세상과 교회를 덮을 것이다.**

얼마나 후암에 짓눌리고, 고통스런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? 미래를 책임질 렘넌트 선교사로 키워야 한다.

2) **이 렘넌트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야 더 오랫동안 건강하고, 확실한 선교를 할 수 있다.**

모세와 갈렙처럼 우리 인생의 노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당연히 시대를 바꾸는 일을 할 수 있다.

그러나 결국 모세의 뒤를 이는 여호수아가, 갈렙의 뒤를 이은 그의 딸과 사위 웃니엘이 그 일을 완성한 것이다.

선교 역사에 한국 선교를 모델로 삼으려는 이유가 있다. 신학교 세워 제자 키웠고, 한국인 중심으로 자립 선교

하게 했고, 학교와 병원을 세워 시대를 치유하는 일을 한 것이다. 그 일을 20대의 씨밋 선교사들이 한 것이다.

**결론-**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이루는 선교, 그 일에 쓰임받을 평신도 전문인 선교, 그리고 렘넌트 제자 선교사를 키우는 것이 선교 치유의 핵심이다. 보좌의 주님은 그 일에 헌신하는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.